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화제만발 프로배구 여자부 2021~2022시즌 16일 스타트

7구단 시대 활짝…미녀들의 '배구 발라드'



2021~2022시즌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여자부 미디어데이가 1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안정적 전력을 구축한 도로공사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7개 구단 대표선수들이 우승트로피에 손을 얹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KOVO

미디어데이를 통해 본 판도

감독 절반 이상 "우승 후보는 도로공사"
"선수 변화 없고 외인·토종 기량 안정적"
현대건설·KGC·GS칼텍스 등 4강 돋보여
외국인선수 경계 1순위 도공 켈시 꼽아

도로공사가 2021~2022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우승에 근접한 팀으로 지목됐다.

1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7개 구단 감독들은 도로공사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여자배구 지도만 30년이 넘는 AI 페퍼스 김형실 감독을 비롯해 KGC인삼공사 이영택 감독, IBK기업은행 서남원 감독,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도로공사를 우승 후보로 꼽았다. 이들은 "선수구성에 변화가 없다. 외국인선수와 손발이 잘 맞고 토종선수의 기량과 개인기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사령탑들의 후한 평가에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은 "뜻밖의 우승 후보 지목이지만 기분은 좋다. 차상현 감독이 공개적으로 우리 팀을 이기겠다고 공격해서 이번에는 꼭 GS칼텍스를 이기고 싶다"며 우승 경쟁자로 현대건설을 지목했다.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지난 시즌 3관왕 GS칼텍스를 우승 후보로 봤다. 강 감독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좋은 팀워크가 그대로 남아있고 새 외국인선수 모마도 팀 컬러에 잘 맞는다. 노련미가 있고 배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KGC인삼공사를 껄끄러워했다. "흥국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팀들과 연습경기를 했다. 우리가 2번 붙어서 모두 이기지 못한 팀이 KGC인삼공사다. 국가대표 주전 세터가 있고 외국인선수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GS칼텍스가 우승을 다투는 4강 2중1약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자부 감독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자기 팀의 장점을 7자로 소개했는데, 압축한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젊은 선수들 똘똘"(김형실 감독), "정말 행복한 시즌"(강성형 감독), "올 시즌엔 봄 배구"(이영택 감독), "올 시즌은 다르게"(김종민 감독), "IBK 챔프 간다"(서남원 감독), "분홍 팀은 걱정 마"(박미희 감독), "이기자 도로공사"(차상현 감독) 등 감독들의 말 속에 이번 시즌 각 팀의 목표가 확실히 드러났다.

팀 성적의 중요 변수인 '가장 경계할 외국인선수' 예측에서도 7개 구단 감독들은 도로공사 켈시를 많이 언급했다. 서남원, 이영택, 강성형, 김형실 감독이 켈시의 빼어난 타점과 V리그에서 2년째 뛰는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박미희 감독은 "기본기와 힘이 좋고 옆의 선수와 호흡이 인상적"이라며 현대건설 야스민, 차상현 감독은 "신장이 좋고 공을 다루는 능력에 힘까지 있어" 인삼공사 옐레나, 김종민 감독은 "키는 작아도 공을 때리는 요령, 파워와 타이밍까지 좋아" GS칼텍스 모마를 가장 경계할 외국인선수로 꼽았다.

V리그 출범 18번째 시즌이자, 사상 처음으로 여자부가 7개 팀 체제로 펼쳐지는 2021~2022시즌은 16일 남자부 대한항공-우리카드, 여자부 GS칼텍스-흥국생명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팀당 36경기, 남녀부 각각 126경기를 치르며 준플레이오프(준PO)~PO~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봄 배구'의 최종 승자를 가린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KT 소형준이 14일 잠실 두산전에 선발등판해 6이닝 7안타 2실점으로 팀 승리의 주춧돌을 깔았다. 턱밑까지 육박한 LG와 삼성의 맹추격에 시달려온 KT로선 값진 1승이다. 잠실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6이닝 3K 6승째…세 번의 두산전서 2승 챙겨
2위권에 1.5게임차 쫓기던 선두 KT 한숨 돌려

지난해 신인왕 소형준(20)이 가장 절실한 순간 눈부신 투구로 위기의 KT 위즈를 구했다.

소형준은 14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 선발등판해 6이닝 7안타 2볼넷 3삼진 2실점으로 KT의 6-2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 2연패로 2위권 팀들에 바짝 쫓겼던 1위 KT(72승7무52패)는 다시 2.5경기차로 달아나며 한숨을 돌렸다.

소형준은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두산전에 2차례 등판해 평균자책점(ERA) 제로(0)로 1승을 챙기고 있었다. 2실점 했지만 모두 비자책이었다. 3번째 만남에서도 투심패스트볼(42개), 슬라이더(36개), 커터(23개) 등을 섞어 두산 타선을 잘 막았다.

1회말 2사 후 연속 3안타로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박계범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실점하지 않았다. 2-0으로 앞선 3회말 3안타 1볼넷으로 2실점했지만, 4회말과 5회말은 연속 삼자범퇴로 막는 등 이내 페이스를 되찾았다. 시즌 6승(6패)째를 챙긴 소형준은 시즌 ERA도 4.46에서 4.37로 낮췄다.

모처럼 KT 하위타선이 터졌다. 2회초 6번타자 유한준-7번타자 배정대의 연속안타로 2사 1·2루 찬스를 잡았다. 8번타자 오윤석이 행운의 2루타를 터트려 2점을 선취했다. 2-2 동점이던 4회초 다시 유한준-배정대의 연속안타로 무사 1·2루 기회를 잡은 끝에 1점을 뽑았다. 6회초에는 1사 후 배정대의 우익수 뜬공이 조명 덕분에 행운의 3루타가 됐고, 9번타자 심우준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탰다. 7회초에도 1사 1루서 유한준의 2루타로 2·3루를 만들었고, 배정대의 우익수 희생플라이 등으로 2점을 추가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후반기 들어 극심한 타격침체로 마음고생을 한 배정대는 3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8면

잠실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경력·신입기자 모집

●모집 부문 : 편집부문 경력·신입기자 0명
●지원 자격
〈경력기자〉▲일간지 1년 이상 근무자 및 주간지 2년 이상 근무자 ▲편집조판 가능한 분
〈신입기자〉▲1997년 이후 출생자, 대학 졸업(예정)자 ※공통사항: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전형 방법 : 1차 서류/ 2차 면접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자는 편집 포토폴리오 5건 (PDF로 제출)
●접수 마감 : 10월 22일(금) 02-361-1608
●접수 방법 : 이메일 ten06sy@donga.com

